

제 1 교시

초월 국어영역 1p해설

[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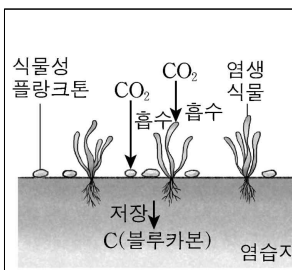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 ①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의 정보량이 이렇게나 터져 나간 수능은
 시력 - 덧셈만으로 풀릴까요?
 시력 + 논리 + 초월 - 곱셈까지는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면,
 덧셈 백날 연습해서, 되는 경우 있긴 하겠지만,
 보편 타당하게 가능한 방법일까요?
 물론 덧셈에 의한 해설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지문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선지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 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해설	'하여'라는 형태소 하나가 틀림. 청유의 문장을 사용한 것은 맞는데, 청유의 문장이 논란을 해소한 것은 아님

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구나 하며 꼬덕이고 넘어가지
 만.
 과연 저런 단어, 형태소 하나까지 하나 하나 점검할 시
 간이 80분 안에 충분한가요?
 일부 문항, 일부 풀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처리 도
 구는 맞지만, 내용일치, 지문 발췌독으로 선지 정오 판
 별... 과연 시간안에, 무엇보다 시험이라는 그 긴장되는
 시간에 가능한 방법일까요?
 8시간 동안 풀면 가능한 방법이지만,
 실전에서는 불가능한 방법.
 이제 아셨으니
 선택과 책임은 당신 몫입니다.

틀린 것 교정 ⇨ 예전보다 나은 실력 ⇨ 성적 향상
 당연한 이 명제가
 왜 국어에서는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P 문제 **C** 원인

1. 틀린 것을 교정하지 않거나
2. 틀린 것을 교정하지 않아 예전보다 나은 실력이 아
니거나

그러면?
 원인은?

1. 현재 자기가 틀렸거나
2. 틀린 것을 교정하지 않은거죠.

이게 합리적 사고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화자는 청유했고,
 청유까지 글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논란 해소 없는건
 가요?
 있다고 보면 절대 안 되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일치, 발췌독,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형태
 소 하나로 답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 하나
 조사 하나 하나

그거 찾는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능력?

2020학년도 9평 어려웠던 지문인 ‘소유와 점유’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네이버에 ‘소유’ 쳐보죠.



아하...

시스타 소유...

네 소유 키, 소속 그룹, 소속사...

이런 정보가 중요해서 어그로 끌리실 건가요?

아니면,

소유...

는 범람이니까

이런 사람에 관한 정보보다는 **지식백과, 어학사전 같은 곳으로** 가야하나?

라고 하며 정보를 찾아가나요?

당연하죠

정보량이 폭발한 지금 시대에

언제 정보 하나 하나 다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사실 시력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를

고3 한테 내는 것이 평가원 의도일까요?

위의 문제는 정말 간단하고,

이미 평가원에서 해왔던 이야기에요.

뇌피셜 말고, 평가원 오피셜 봅시다.

2004년 12월 최초이자 최후로 나온 출제매뉴얼.

나.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읽어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요약하며 의 연결과 전개 방법 및 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사실 그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사실적 사고의 측정 요소가 된다. 다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여 다른 능력, 예컨대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낮추어 측정한다. 사실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독서란, 결국 읽고, 이해 하는 것이다?

읽고 = 독

이해 = 해

아. 독해?

과연 독해력만 묻나요?

나. 사실적 사고

다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여 다른 능력, 예컨대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낮추어 측정한다. 사실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하위 평가 목표

- (가) **내용**의 사실적 이해
- ① 내용의 정보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② 글 전체의 내용과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가.
- (나) **글의 구조**에 대한 사실적 이해
- ① 글의 구조 단위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② 글의 형식적 요소와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우리의 국어 공부는 지금까지
내용만 처리해 왔습니다만,
 평가원에서는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구조처리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는 구조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평가원 오피셜에 빗한, 접근이 아닌
 뇌피셜이 상당히 섞인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는 당연히
 내용도
 구조도 있으니
 둘 다 중요한 것이 당연하고

다만 비문학은 내용 중심
 화작문은 구조 중심의 출제를 해온 것이죠.

위의 1번 문제.
 구조로 처리하면 정말 너무 간단한 것이

지 문	구조 판단	선 지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 참합시다.	청유-주장 마무리	청유의 문장을 사용 논란 해소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 합니다.	주장	주장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 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논란 아님! 예상가능 반론 따라서 정답!	야기한 논란

깔끔하게 정답 1번.
 즉, 위의 내용은 논란이 아닌, 예상가능한 반론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파이널 1차 1장 파이널 참고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설문' 유형 특성
 작문 유형으로 출제 따.라.서... 묻는 것은 철저하게

1. 논증구조

필수 : **주장+근거**
 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주장+근거** +예시
 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감점**
 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가점**
 전제+**주장+근거**+예시+ **예상가능반론+재반박**

2. 비판 유형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
 정답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
 정답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서술**)
 논술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우열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
 (특히 주장)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
 지만 판단해도 95% 정답.

압도적 성장률 **배인호 신수능국어**

예상가능 반론 + 재반박 구조이지

글의 구성원리 통일성에 따라,
 논란을 글 안에 넣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저 부분은 논란이 아닌
 예상가능 반론으로 구조처리.

바로 정답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번문제.

대부분의 해설은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대체' 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그래서 정답이라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단어로 정답이 되고 안 된다...
 80분 안에 그 모든 것은 찾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역시 구조를 묻는 의도의 화법이고
 따라서 구조 킬면 매우 간단해집니다.

도입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근거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보이시나요?

	2단락 해법		결론 단락 요약 해법
S1	이산화탄소 배출 줄임	S1	일회용품 줄이기
S2	산림 조성	S2	나무 한 그루 심기
S3	연안 생태계	S3	연안생태계 보호

참고로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랑
 일회용품 줄이는게 뭘 상관이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독서 교과서에 있는
 독서 방법 - 독서 모형 보시면

상향식 독서모형 + 하향식 독서 모형
 이 있고
 둘 다 하는 것이 상호작용식 독서모형입니다.

상향식 - 글 내용에만 집중하여 처리
 하향식 - 배경지식 바탕 처리
 상호작용식 - 둘 다 활용

하향식 하시면 알겠지만
일회용품이 환경 오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그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올테니
안 쓰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죠?

즉, 학생들 대상 구체적 실천 방안이니!
마지막 단락에 구체적 실천 방안의 예시를 준 것입니
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 ⑤

그럼 바로 정답 보이죠?

대체가 아니라
보완.

문제는!
이렇게 정보가치 높은 내용 + 구조
좁히고 필요하면 발췌독 하면
100개에 해당하는 정보 중 1~2개에 집중하니

시간, 정확도, 실수, 피로도
모든 것에서 이득이지만,
100 정보를 모두 와리 가리 발췌독 근거 잡는다?
당연히

시간 걸리고
정확도 떨어지고
실수 유발되고
정답률까지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전에서는
더더욱 100개 전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 유발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재수 이상에서 더더욱 잘 아는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
2015개정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출제진/평가원 연구진도 바뀌었으니
이전과 뭔가 다른 방향을 잡으려고 한 것이

기존 1페이지는 100% 정보전달의 화법에서
이제는 설득의 화법으로 바꾼 것인데
어느정도 예측될 수 있음을 미리 수업등에서 설명드려
왔고

사실 별 것 없습니다.
1장 파이널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대응 가능한 변화.

3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틀렸다고 가면 답이 없습니다.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예를들면 1번 선지 틀린 이유를
누구는
‘복구’가 틀렸다고 합니다.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
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
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
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
다.

위 지문 내용을 보면
훼손되면
이라는 가정이니
즉, 아직 훼손 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출됩니다.
시제는?
현재 미래 과거 중?
현재죠.

네, 현재 훼손 된 부분이 있으니 보호하자는 것인지
훼손 될 수 있으니 보호하자는 것인지
시점자체는 모호한 것이
시제가 12개나되는 영어 대비 시제 구분 거의 없는 우
리 국어의 특징이고

결과적으로 문법적/논리적으로 저러한 풀이를 했다고 잘 풀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위 유형?

역시 1장 파이널에 있습니다.

2~3p 상호작용의 화작 통합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 1. 대화(상호작용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 전환 + 여전히 **구조, 전개방식** 집중처리
- 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 접근으로 시간, 발체독 횟수 대폭 감소 필요
- 3. 특이유형 cf)고쳐 쓰기 (관련개념 :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
 - 정답선지- 맞춤법확률5%미만(그것도 언어영역시절)
 - 정답선지- 글의 구성 원리 80%
 - 정답선지-macro 문법파트(그 중 문법요소파트)15%
 -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 원리에 초점 두고 지문 뚫기
- 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보기> 조건 확인 후 발체/기준 잡아 처리)
- cf) 자료활용유형 (원래 작문유형이나 통합형 출제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선지' = 정답

네.

표현하기 유형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 소리지 싶었더니

㉠에 주목

표현법 : 비유!

그럼 표현법 쓴 것은? 3,4번만 남네요.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따라서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여기에서도.

주제가

산림 조성이 아니라

연안생태계구나!

정답 4번 끝.

겨우 3문항 설명이라

앞으로 드릴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차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